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 KAIST기숙사에 우정(宇庭)을 기부하다

“대한민국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 KAIST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바란다”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

KAIST(총장 이광형)는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이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 KAIST 기숙사 리모델링 기금으로 200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 KAIST 나눔관에서 열린 ‘우정 나눔 연구동 기공식’에
는 이종근 회장을 비롯하여 이광형 총장, 부총장단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우정(宇庭)은 이 회장의 아호에서 따 온 이름으로, ‘우주의 정원’이라는 의미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

이종근 회장은 “교육재화는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신념에 따라 교육지
원과 육영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
가 설립한 부영그룹도 회사 설립 초기부터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 회장이 그동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대학교에 기부한 교육·문화 시설은 130
여곳이 넘는다. 2019년에는 창신대학교를 인수하여 교육혁신지
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KAIST에 대한 기부도 이 회장이 일관되게 이어 온 교육기여 활
동의 일환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
인 KAIST에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바란다”며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을 기부했다. 외관 건축
공사를 비롯해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내·외부 건물 전체를 손볼
예정이다.

대상 기숙사는 가장 노후화된 4개동인 대전캠퍼스 나눔관과

공동아파트,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다. 1989년에 준공
된 학생 기숙사인 나눔관은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 운영이 중단됐
고, 1993년 준공한 기혼자 기숙사 공동아파트는 부분적으로 보
수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시설이 낡아 불편이 많았다. 서울캠퍼
스의 생활관 소정사는 1972년, 파정사는 1975년에 준공되어 리
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KAIST는 이종근 회장의 뜻
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리모델링 한 모든 기숙사에 이 회장의 아
호를 따서 ‘우정 나눔 연구동(가칭)’, ‘우정 공동아파트(가칭)’, ‘우
정 소정사(가칭)’, ‘우정 파정사(가칭)’ 등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이종근 회장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가는 KAIST 학생들이
‘우정’ 기숙사에서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광형 총장은 “이번 이종근 회장님의 기부 결정으로 평소 다
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신 선한 영향력이 KAIST에
도 전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부영그
룹과 회장님의 큰 뜻을 감사히 받아들여 그동안 학생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노후 기숙사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ian



대전캠퍼스 나눔관은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회장의 이번 기부로 나눔관은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우정 나눔 연구동'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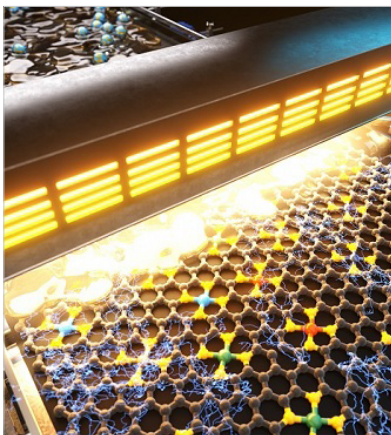
우정 나눔 연구동 기공식장에서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념사진



+ 하운드(Hound) 로봇, 100m를 19.87초 주파, 기네스 기록

KAIST 기계공학과와 박해원 교수 연구팀이 제작한 사족 로봇 하운드(Hound)의 사족 보행 로봇의 100m 달리기 기록이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았다. 하운드는 KAIST 동적 로봇 설계 및 제어 연구실에서 제작된 로봇으로, 지난 2023년 10월 26일에 측정된 실험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100미터 선을 19.87초 만에 통과한 후 완전히 멈추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과는 AI 방법론 중 하나인 강화학습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가상환경에서 훈련된 단일 제어기를 통해 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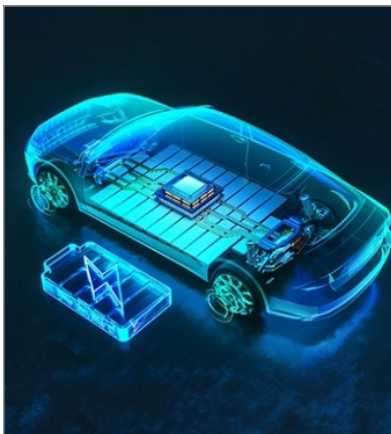
» 더보기



+ 강한 빛에서 0.02초 내에 새로운 촉매를 합성하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최성울 교수 연구팀과 신소 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0.02초 이내에 나노입자 촉매와 단일원자 촉매를 진공 시설이 없는 대기 조건에서 합성하고 우수한 촉매 성능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2022년 4월 제논 램프 빛을 조사해 금속산화물의 상 변화와 표면에 촉매 입자가 생성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힌 데 이어 기존의 합성법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촉매 입자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 더보기



+ KAIST-LG에너지솔루션, 리튬금속전지 기술 혁신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와 LG에너지솔루션 공동연구팀이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금속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리튬금속전지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리튬금속은 전지의 수명과 안정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덴드라이트' 형성과 액체 전해액에 의한 지속적인 부식이 발생하여 기술적 해결이 필요하다.

» 더보기



+ ‘당신 우울한가요?’ 스마트폰으로 진단하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사용자의 언어 사용 패턴을 개인정보 유출 없이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분석해 사용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만 해도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 및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임상적으로 이뤄지는 정신질환 진단이 환자와의 상담을 통한 언어 사용 분석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 더보기



+ 27대 총동문회장엔 이윤태 LX세미콘 대표이사 선임

KAIST가 제27대 총동문회장으로 이윤태 LX세미콘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학위(85년)와 박사학위(94년)를 취득한 이윤태 신임회장은 198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전문가로 임지를 다졌으며, 2014년부터 삼성전기 경영을 맡아 부품사업에 대한 안목과 과감한 사업 결단력으로 삼성전기 역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년이다.

» 더보기



+ 명현 교수, 한국로봇학회 학술상 및 제어로봇시스템학회 IEEE 학술활동상 수상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명현 교수가 국내 로봇 관련 양대 학회인 한국로봇학회와 제어로봇시스템학회에서 각각 학술상을 수상했다. 명현 교수는 지난 12월 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관 SC컨벤션에서 열린 한국로봇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로봇학회 학술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하는 한국로봇학회의 학회상으로서, 독창적인 연구성과와 저술활동을 통해 국내외 로봇 기술 및 관련 학문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포상하는 한국로봇학회 최고 권위의 상이다.

» 더보기



+ 전산학부 이의진 교수, ICMU 학회 기조 강연 진행

KAIST 전산학부 이의진 교수가 11월 29~12월 1일 동안 일본 고토에서 열린 ICMU 학회에서 “참여도 증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 및 웰빙”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ICMU 학회는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다루는 국제학회로 사람, 스마트 센서, 기기가 초연결된 차세대 컴퓨팅환경에 관한 최신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교류의 장이다.

» 더보기



+ 최진석 교수,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우수 젊은 연구자 상 수상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최진석 교수가 무선 통신 분야에서의 업적으로 IEEE의 통신 분야 아시아-태평양 우수 젊은 연구자 상을 수상했다. 최진석 교수는 꾸준한 연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통신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상은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젊은 우수 연구자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 한국에서는 최진석 교수가 단독으로 수상했다.

» 더보기



+ KAIST미술관이 기획한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초청 전시,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KAIST가 12월 20일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의 달 궤도 임무운영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를 (주)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개최했다.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는 KAIST 미술관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KAIST 창의학습관에서 진행했던 ‘다누리의 스펙타클’ 전시의 연장선이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연구성과를 전시해 우주여행에 대한 간접 체험을 제공하고 미디어아트와 다누리 촬영 작품을 통해 우주과학 기술에 대한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기획됐다.

» 더보기



+ 오픈하이머 같은 20대 박사 양성한다

KAIST가 대학 학사과정 입학 후 7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3+4 TUBE(가칭, 이하 튜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대 박사를 특별 육성하기 위해 학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튜브(TUBE)’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학사 3년 과정을 포함해 총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는 모델로 설계됐다. 영재학교나 과학고의 영재교육 과정을 거쳐 만 18세에 KAIST에 입학한 학생이 튜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만 24세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 더보기



+ 푸른 가능성의 청사진을 전시하다

KAIST 산업디자인학과에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협력전시인 ‘청사진: 푸른 가능성’ 전시를 개최했다. 산업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과 이색 아이디어들을 대중에게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재단의 복합문화공간인 온드림 소사이어티(ONDREAM SOCIETY)에서 무료로 공개했다.이번 전시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의 3개 연구실과 10명 학부생의 푸른 상상력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 더보기



+ 학계 중심 답모빌리티 컨소시엄 출범식 개최

KAIST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밀착형 산-학 협력 모델과 대전시와 협약을 통해 ‘답모빌리티 컨소시엄’ 출범식을 12월 4일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했다. KAIST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학계 중심의 다기관 회원제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참여기업의 연회비를 기반으로 개방형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근거로 관내 일부 도로를 리빙랩으로 조성해 컨소시엄에서 개발된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한다.

» 더보기